

돼지콜레라 박멸기금 모금 동참 줄이어

-퓨리나코리아 · 도드람사료 박멸기금 2억원씩 기탁



퓨리나코리아 김기용사장(왼쪽 사진 오른쪽)과 도드람사료 김대성 사장(오른쪽 사진 오른쪽)이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에 써달라며, 최상백 비대본부 상임본부장에게 각각 2억원의 박멸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돼지콜레라를 박멸하기 위한 기금 모금 대열에 사료업체는 물론 동물약품업체, 종돈장, 양돈 관련업체가 적극 동참하고 나서 박멸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양돈용 사료 최대 생산업체인 퓨리나 코리아와 양돈사료 전문 생산업체인 도드람사료가 각각 박멸기금으로 2억 원을 기탁하면서 여타 사료회사들도 곧 기금을 기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기금출연이 줄을 잇고 있다.

김기용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사장은 8월12일 양돈회관을 방문하고, 최상백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상임본부장에게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에 써달라며 박멸기금 2억 원을 전달했다. 또한 도드람사료가 6월8일 5천만원의 박멸기금을 기탁한데 이어, 8월23일 또다시 김대성사장이 양돈회관을 방문하고 최상백 상임본부장에게 추가로 1억5천만원의 박멸기금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 한백용)도 8월13일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멸기금 1억 원을 조성, 빠른 시일내에 비대본부에

납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앞서 지난 5월 중순에는 녹십자수의약품, 대성미생물연구소, 바이엘코리아,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한국미생물연구소 등 백신 제조회사가 각각 5백만원씩 기금을 납부한데 이어 다비인티 2백만원, 도드람양돈축협 5백만원, 한국농어민신문 4백만원, 한국동물약품유통협회에서 2백만원의 박멸기금을 기탁했다. 또한 (주)듀폰에서는 비대본부에 위생방역복 200벌을 기증, 긴급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는 용인 양돈방역사업단에 즉시 전달되기도 했다.

이같은 박멸기금 모금 동참속에서 우성사료와 대한제당, 서울사료 등이 조만간 박멸기금을 기탁하기로 내부결정을 한 상태이며, 다른 사료업체들도 곧 기금 출연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본회는 양돈농가들이 솔선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2억 4천여만원의 박멸기금을 모금해 비대본부에 기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곧 이사회의를 열어 모금방법 등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돈**